

대중문화계 매출 6조원 넘어서

201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전체 규모 6조4210억원으로
 2016년보다 19.5% 증가
 빅히트 등 신진 기획사 약진
 예술인들 개인 소득수준은
 180만2000원으로 여전히 낮아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가 6조원을 넘어 2년 전보다 20%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예술인들의 월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 불과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사업체의 실태와 종사자의 활동 현황, 노동 환경 등을 내용으로 '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규모는 6조4210억원으로 직전 조사인 2016년의 5조3691억원보다 19.5% 증가했다. 이는 등록된 대중문화예술 기획사들의 증가와 16개 상장기획사의 매출 증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같은 신진 기획사의 약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

으로 콘텐츠진흥원은 추정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매출 규모도 8742억원을 기록하면서 2년 전의 5175억원보다 성장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의 인기와 BTS 등 케이팝(K-Pop) 아이돌 그룹의 성공적인 해외 활동, 글로벌 팬덤 형성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사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9141명으로 2년 전보다 1082명(13.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컬·댄스 등 가수가 4003명(43.8%), 연기자 3422명(37.4%), 모델 693명(7.6%), 코미디언 188명(2.1%), 성우·크리에이터 등 기타 835명(9.1%)으로 집계됐다.

연습생은 319개(14.7%) 업체에 총 1671명 소속돼 2016년에 비해 231명(16.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가수 지망생이 1204명(7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개인 소득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황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활동에 따른 소득과 부업 등 기타 소득을 합산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80만2000원으로 2016년의 183만2000원보다 되레 감소했다. 앞서 2014년 월평균 소득은 185만3000원이었던 점을 볼 때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대중문화예술활동 소득이 아닌 아르바이트 같은 부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다른 소득이 감소한 탓이라는 게 콘텐츠진흥원의 설명

이다. 대중문화예술활동 분야의 소득만 따져보면 2018년 월평균 128만2000원으로 2016년의 114만9000원보다 다소 늘었다.

그럼에도 예술인들의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일부 예술인들을 제외하고는 조연급 연기자나 희극인들, 인디 음악인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최저임금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39만6000원으로 2016년 보다 2만1000원 늘었다.

이 밖에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진속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94.9%로 2년 전의 84.0%보다 10.9% 증가했다. 또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의 서면계약률도 66.5%에서 73.6%로 상승했다.

성미경 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월평균 소득이 순수예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면서도 "계약을 부정기적으로 하다보니 소득의 편차가 크고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들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상에도 공정한 계약과 분배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 수립 및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 등 건강하고 투명한 산업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캡처

문예진흥사업 2차 공모 추진

**전북문화관광재단, 24일까지
7개 사업 20억5600만원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0년 문예 진흥사업 2차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무대공연작품 제작, 국제문화예술교류, 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 소극장(소공연장),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우리 가락 우리 마당 등 총 7개 사업으로 20억5600만원이 지원된다.

먼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공연장의 활성화와 공연단체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총 지원금은 5억7600만원이다. 도내 공연 단체는 지역 공연장과 협약을 체결해 지원하면 된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은 전북도 창작 초연작품 중 우수공연을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선정된 단체는 하반기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통합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지원금은 4억4000만원이다.

작년까지 해외전시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던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은 기존 시각예술 분야뿐 아니라 공연예술 분야까지 확대해 폭넓은 장르의 국제 문화예술 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총 지원금은 2억9000만원이며 해외 예술단체를 국내로 초청하거나

도내 예술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내 창작공간 운영시설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금은 2억5000만원이며, 6곳 내외를 선정한다.

소극장 지원 사업은 도내 민간 소극장 지원을 통해 창작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연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금은 2억4000만원이며,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내 등록을 완료한 민간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총 지원금은 1억원으로 6곳 내외를 뽑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야외 상설공연 지원 사업은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야외 상설공연을 기획·운영할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지원금은 1억6000만원이며 1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또는 문예진흥팀(063-230-74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문화로 번역력 UP'

**고창문화관광재단
코로나19 극복 대책회의
생태·치유 활용한
어르신 문화지원 등 추진**

고창군과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최근 코로나19를 문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고정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수입구조 창출과 지역 주민들의 위축된 분위기 반전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지역 문화인들은 실내, 대면활동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생태와 치유를 활용한 어르신 대상 문화지원 ▲순 소득제와 마스크 만들어 나누기 ▲청소년 UCC 콘테스트 및 고창 문화유산을 활용한 UCC 만들기 ▲지역 농산품 온라인 홍보 마켓 등을 펼쳐 가기로 했다.

먼저 고인돌공원과 생태공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생태엽서 쓰기, 꽃과 곤충 등을 살피는



고창군과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최근 코로나19를 문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숲 놀이터 형태의 안심생태공간 운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가 지역사회에 작동해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문화의 지역사회 활용방안 등 고창의 문화번역체계를 키우기 위한 '고창형 문화 매뉴얼'을 체계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미당 서정주 동생 서정태 시인 별세... 향년 97세

미당 서정주(1915~2000) 시인의 동생 서정태 시인이 지난 11일 향년 97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서정태 시인은 서정주 시인과 사이가 각별했고 서정주 시인을 따라 시인을 꿈꿨다고 한다.

고인은 고창 출생으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일간지에 시를 발표했다. 1946년 민주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 1951년 이후로는 전주에 거주하며 삼남일보, 전북신문 등에서 30년 간 근

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시집은 1986년 출간된 '천치의 노래', 두 번째 시집은 27년만인 2013년 나온 '그냥 덮어둘 일이지'이다.

빈소는 고창군 고인돌 장례식장 3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